

■ 2026년도 시각예술 창작주체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시각예술 창작주체 지원심의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2025년 12월 15일(월), 13:30 ~ 16:00/ 예술가의 집 영상회의실

- (2차) 2025년 12월 22일(월)~24일(수), 09:00 ~ 19:00/ 나주본관 중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남인숙, 변종필, 윤동희, 이윤희, 이준, 이현

2026년도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 창작주체> 사업은 시각예술 현장의 중추적인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는 공간 운영 주체(미술관, 비영리 대안공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본 사업은 단년(1년, 2026년)과 다년(3년, 2026~2028년) 사업으로 구분하여 매년 성과를 모니터링·평가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심의 전문성 및 심의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으로서 사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관된 판단 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원 사업의 성과를 실제 현장에 환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PT 심의를 단계별로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신청 접수한 총 593건 중 <시각예술 창작주체> 부문의 심의 대상은 74건(단년 64건, 다년 10건)이었으며, 그중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1건(단년 19건, 다년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심의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심의 절차와 방법, 공공 기금 사업의 취지와 중대성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수행하려 노력했습니다.

1차 심의는 6인의 심의위원들이 지원신청서를 전수 검토하고, 시스템에 심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입력한 후 총합을 도출하여 상위순으로 2차 심의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공지된 대로 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50%), 사업계획의 공공성(20%) 및 각 평가항목별 세부지표에 따라 엄격히 적용, 본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운영 주체를 선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에서는 신청 주체의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향후 1년 또는 3년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실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년 지원의 경우, 3개년 장기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폈으며,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할 거점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원 기간 내 자율적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실행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년 지원 역시 사업 계획의 구체성을 기재하고, 합당한 예산에 따른 결과물의 명확성과 지원 사업의 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서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적 기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보편적 타당성과 공공적 공감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될 예술적 성취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선정된 다수의 기획안은 공간이 점유한 장소의 역사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예술적 서사로 치환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특정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동시대 미술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전시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담론을 형성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기획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공간의 정체성과 사업의 지향점이 유기적으로 결합 되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2026년이라는 시점의 상징성을 반영한 특별한 기획이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작업 세계를 확장하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랜 업력을 쌓아온 운영 주체들의 경우, 상근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신진과 중견을 아우르는 폭넓은 작가 섭외력을 통해 전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시각예술의 경계를 넘어 타 장르와의 협업으로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참여형 워크숍 등을 통해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의 공공성을 실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서들은 향후 지역 거점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선정에 이르지 못한 기획안들은 공통적으로 공간의 정체성과 사업 방향성의 모호함,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전략의 부재가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의 전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차별성 및 실험성 부족, 예산 편성의 합리성 결여, 그리고 세부 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의 불일치 등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장소성', '기억', '아카이브'와 같은 동시대 미술의 보편적 화두를 다루면서도, 기존의 관례적인 전시 형식을 답습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긴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각예술 창작주체로서 현장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거나 도전적인 예술적 실험을 시도하기보다, 관성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치중한 기획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간이 내세운 거창한 비전에 비해 실제 실행 계획이 단편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서술이 추상적이고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도 미선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대안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운영의 관습화로 인해 공간만의 특성화 영역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운영 인력 및 전문가 활용 계획의 미비,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 역시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기획력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의 불합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적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반면, 정작 결과물의 완성도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 항목이 누락되거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산 편성은 곧 프로젝트의 실현 의지와 결과물의 구체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트를 통해 도출할 지향점이 예산안에 유기적으로 녹아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이상적으로만 수립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1.5배수 이내에서 인터뷰 대상을 선별하고, 심의위원 전원이 지원신청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심의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별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정해진 인터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공통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전담 질의 위원을 정하고 다른 위원들이 보완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서류상 확인이 필요한 세부 사항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 예산 집행 계획의 타당성까지 심층적인 검증이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심의 대상에는 본 사업의 기수혜 공간들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직전 연도 사업 성과 및 현장 평가 결과를 주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정 단계에 그치지 않고, 계획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엄격히 점검함으로써 사업 운영 주체와 심의위원 모두가 결과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성과 기반의 평가 체계는 2027년도 사업 선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2차 심의는 실제 현장의 생생한 호흡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심의였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지원자들 간의 평가인 만큼,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 계획과 실행 방법론, 결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답변하는지가 최종 선정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주체라 하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선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공적 지원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공지된 대로 단·다년 사업 신청수요와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배정은 사업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에 더욱 엄격하고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실행 계획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항목은 부득이하게 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계획과 예산의 정합성이 뛰어난 사업은 기획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전액 배정하였습니다.

최종 심의를 마친 후 위원들 간의 소회를 공유하며 본 사업의 향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우선, 기획의 비평적 레퍼런스와 이론적 기반이 약한 지원서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기획자의 역할과 참신한 기획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작가의 작업 세계를 견고하게 뒷받침할 만한 기획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나 새로운 비평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은 향후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더하여, 지역성을 막론하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경쟁력 있는 대안공간(신생 공간)의 등장이 저조했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물이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세대, 나아가 국가를 넘어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와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사업 성과의 확산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본 지원 사업은 시각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의적인 플랫폼을 지지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각 지역과 현장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해 온 다양한 층위의 전시 공간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제안된 사업 기획안들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시각예술 현장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기획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깊이 있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의 과정에서 마주한 공간들의 도전적인 담론 형성과 기존 공간들이 축적해 온 예술적 영향력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가려내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의위원들 또한 마지막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정과 미선정을 가른 기준은 결코 역량의 절대적 우열이 아닌, 사업의 세부적인 실현 가능성과 예산 타당성, 지속 운영 가능성, 시대성과 당위성 등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밝히며,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지원자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향후에는 공간만의 독보적인 예술적 방법론을 더욱 강화하고, 시대적 담론을 창출하고, 예산의 구체적 근거 확보는 물론 전시를 넘어 현장과 소통하는 유기적인 활동 계획을 보완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록 모든 주체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에 보여주신 모든 계획안은 한국 시각예술의 저력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현장 공간 운영 주체들의 협력이 시각예술 생태계의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믿으며, 현장의 최전선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모든 창작 주체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